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회의록

◆ 선정위원회 개요

- 일시 : 2016. 2. 26(금) 14:00~15:40
- 장소 : 보건소 8층 sb 기획실
- 대상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 참석인원
 - 위원 : 심사위원 총 7명중 5명(부위원장, 유호신 고려대 간호학과 교수, 양현준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장, 김성남 동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이용철 건강관리과장)
 - 기타 : 관계공무원 4명, 수탁 신청기관 관계자 4명
- 진행순서
 - 위원소개
 - 인사말씀
 - 개최경위 및 심사방법 설명
 - 선정심사
 - 심사결과 발표

◆ 심의 내용

- 부위원장(성북구보건소장)
 -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임. 기존의 보건사업은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 등을 조사하여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하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왔음.
 - 기존 보건사업과 달리, 생태계기반조성사업은 주민이 단순한 사업대상자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주민의 건강문제가 무엇인지, 지역사회의 건강문제가 무엇인지 등 건강문제를 발굴, 분석, 기획하고 비슷한 관심을 가진 주민 소모임 등을 만들며, 건강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하는 사업임.

- 작년에는 생명의전화복지관이 생태계사업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명의전화복지관이 중단하게 되어, 올해는 사업의 주체가 바뀌게 되어 신규사업으로 다시 민간위탁 공모를 하게 됨. 작년에 사업을 시행한 4개구 중에 민간단체가 바뀐 2개구를 포함해 올해 신규로 6개구가 사업을 하게 됨.
-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 수탁기관 공모에는 1개 단체가 신청하였음. 신청한 민간단체가 성북구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인지 위원님들이 평가해주시기 바람.
-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평균점수 70점 이상과 과반수 이상 위원이 70점을 평가해야 함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음.

● 양현준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장

- 작년도 1차 사업 내용과 올해 사업 내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 올해 사업에 자원조사, 의제 발굴이 있는데 1차년도에는 자원조사나 의제 발굴이 없었는지? 작년과는 좀 더 강화한 사업진행되기 바람.

● 제안발표자(김미애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1차년 사업에 비해 올해 강화한 부분은 주민 소모임 부분이며, 개별 주민을 많이 만나서 주민 소모임을 지역에 지속적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며, 주민축제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홍보하며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사업을 강화할 것임.
- 1차년도에는 생명의전화 복지관에서 복지관 주변지역의 자원조사나 의제 발굴이 있었는데, 작년의 의제가 끝났다고 보다는 기존 지역을 아울러서 작년의 건강의제를 포함하고, 작년에 못했던 길음지역 등에 추가확장해서 할 예정임.

● 이용철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 복지관의 그동안의 인프라 구축과 경험이 많아 지역주민 깊숙이 침투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은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함에 있어 복지가 아닌 건강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할 것 같고, 특히 정신건강이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데 건강프로그램 등에 대한 소개가 부족한 것 같음.
- ‘찾동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태계사업도 추진하길 바람.

● **제안발표자(김미애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건강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일을 해나갈 것이며, 큰 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소개를 했고, 세부 건강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음.
- 건강부분에서는 새로운 의제 발굴 외에 기존에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가족들의 양육스트레스, 주부 우울 등 정신건강을 포함해 성교육, ADHD, 당뇨 자가관리 등 지역의 기존에 발굴된 의제 들을 같이 진행해 나갈 것임.

● **김성남 동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 정신건강의 문제는 어느 곳에서나 포함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음. 건강 탐사단에 대학생, 주민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병·의원들을 포함하여 진행하면 어떨지? 복지관이다 보니 지역 단체들과 연계사업을 많이 할텐데 결국은 복지관의 직접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봄. 그러기 위해선 건강문제를 직접 다루는 관련 병·의원 및 기관들을 포함하여 이 사업이 지속 사업이 되도록 진행하여야 한다고 봄.

● **제안발표자(김미애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고려하여 진행하겠음.

● **유호신 고려대 간호학과 교수**

- 이 사업의 목표가 인프라 구축과 주민의 참여 지속화라고 하였는데 사업의 내용면에서 영성한 부분이 있음. 주민의 복지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건강문제로 접근을 해야 함. 보건소 등에 보건사업의 지표나 건강자료는 이미 많은 자료가 있고 지금은 자료 조사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중요한 단계임. 의제 발굴이나 건강수준에 대한 조사와 인건비 등에 많은 예산을 쓰면 인프라 구축 등은 힘들 수 있느니 기존의 자료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지역축제나 캠페인 등 행사 위주의 사업보다는 추후에 예산 보조가 없더라도 주민이 자생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추진하기 바람.

● **제안발표자(김미애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유념하도록 하겠음.

● **정유섭 성북구 건강정책과장(간사)**

-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할 경우 복지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고 복지관 사업과 생태계사업이 확실히 분리되어 담당자가 이 사업을 분명하게 진행해야 함. 또한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복지관 예산과 이 사업의 예산집행 부분이 엄밀히 구분되어 집행되고 관리되어야 함.
- 인력을 따로 채용을 하는데 생태계 사업은 사무실 위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고, 현장에 나가 주민을 직접 만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 모임을 코칭하는 등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도와야 함. 기존에 형성된 인프라나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모여 회의나 행사 위주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고, 많은 주민을 참여시키고 활성화해야 함.
- 이 사업의 시행여부는 서울시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그 이후에는 세부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4천5백만원의 사업비는 확정된 것은 아니며 사업내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장민균 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

- 길음복지관은 그동안의 주민 네트워크 사업 경험이 풍부하며, 이 생태계사업도 복지관이 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임.

● **부위원장(성북구보건소장)**

- 수탁 신청 단체 관계자분들은 퇴장해주시기 바람.
-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평가표에 점수를 기입해주시기 바람.

● **부위원장(성북구보건소장)**

-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83.6점이고 위원 5명(과반수)의 점수가 70점 이상으로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단체로 선정하는데 심사위원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의 수탁기관 대상단체로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을 선정함을 의결함.
- 폐회 선언 -